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 확정!
		배포일자	2023년 5월 15일(월) 총 2매	
담당 부서	노인정책과	담당자	• 노인돌봄요양팀장 이인화 ☎440-2821 • 담당자 장세희 ☎440-282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노인학대 예방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 위촉

- 대학생 서포터즈, SNS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노인 인식 개선 역할 -
- 노인복지시설 모니터링단, 입소 노인 인권침해 모니터링하고 예방 역할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대학생 서포터즈 및 노인복지시설 인권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노인학대 예방 대학생 서포터즈와 노인복지시설 인권모니터링단의 활동 시작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노인학대 예방 대학생 서포터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유튜브(Youtube) 플랫폼을 이용해 젊은 세대들에게 노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총 39명을 위촉했다.

인권 모니터링단은 인천시 내 노인복지시설의 노인과 종사자들을 대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입소 노인의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 특화사업으로 선정된 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총 67명이 위촉됐다.

1부 기념식은 위촉장 수여 및 기념 촬영을 진행했고, 2부는 대학생 서포터즈, 노인복지시설 노인 인권 모니터링단 사업의 추진계획 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 시에서는 노인인구 변화에 발맞춰 노인 보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생 서포터즈와 노인 인권 모니터링단과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다지고 노인이 행복한 인천시를 만들기에 함께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그 외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